

팬 아니라도 ‘꿀잼 보장’...아이돌 콘텐츠 뜬다!

세븐틴·NCT 등 자체 콘텐츠 주목
BTS는 ‘맛남의 광장’ 등과 컬래버
OTT·방송사, 콘텐츠 확보에 앞장

인기 아이돌 그룹의 ‘자체콘텐츠’가 팬덤을 넘어 새 예능프로그램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달려라 방탄’, 세븐틴의 ‘고잉세븐틴’, NCT의 ‘NCT라이프’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각 그룹의 멤버들만 나오는 영상이 팬들만 소비하는 콘텐츠로 인식됐으나, 최근 들어 예능프로그램 못지않은 다채로운 기획을 내세워 팬이 아닌 시청자까지 사로잡고 있다.

● “팬 아닌데도 스며드는 매력”

‘달려라 방탄’(달방)은 방탄소년단이 2015년부터 8월부터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주요 콘텐츠 중 하나다. 일곱 멤버들이 떠나는 여행부터 토크쇼, 추격전 게임, 운동회까지 다양한 소재를 소화하고 있다. 최근 tvN 나영석 PD의 유튜브 콘텐츠 ‘채널십오야’·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한 SBS 예능 프로그램 ‘맛남의 광장’과 컬래버레이션 특집도 내놔 화제를 모았다.

세븐틴 멤버들은 2017년 6월부터 유튜브와 브이라이브로 공개해온 ‘고잉세븐틴’을 통해 방탈출, 마피아게임, 보물찾기 등을 한다. 시리즈 영상들은 많게는 유튜브 조회수 230만회를 얻으면서



그들 방탄소년단의 ‘달려라 방탄’(위), 세븐틴의 ‘고잉세븐틴’ 등 아이돌 그룹의 자체콘텐츠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출처 | 네이버 브이라이브·유튜브 영상 캡처

뮤직비디오를 제외하고 세븐틴 공식 계정으로 공개된 다른 영상들보다 10배가량 많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NCT라이프’는 NCT 멤버들이 유닛별로 전 세계 다양한 도시를 방문하는 모습을 담는다. 2016년부터 태국 방콕·치앙마이, 서울 등을 거쳐 최근 경기도 가평 팬을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OTT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KT시즌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들 영상은 매회 색다른 포맷들을 활용하면서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선에 맞게 토크 튀는 자막과 컴퓨터그래픽을 더했다.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하는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돼 멤버들의 애드립, 풋박의 반

전 매력도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장점들은 특정 팬층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고잉세븐틴’을 시청하기 시작한 20대 김조인 씨(회사원)는 13일 “평소 방탈출을 좋아해 유튜브로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다가 방탈출 편을 우연히 접했다”면서 “그룹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재미있었고, 다른 영상들도 호기심 가는 주제가 많아 계속 찾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신인그룹들도 ‘입소문’

트레저, 베리베리 등 신인 아이돌 그룹들은 오히려 자체콘텐츠의 힘을 빌려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각각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 ‘트레저맵’과 ‘벨랑진창 벨벨랜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멤버들의 엉뚱한 매력과 유튜브 특유의 ‘B급 감성’이 잘 녹아져있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최근 조회수도 부쩍 상승했다.

발 빠르게 흐름을 읽은 OTT와 방송사는 아이돌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나섰다. ‘NCT라이프’는 시즌1부터 KT시즌에서 공개했고, ‘트레저맵’은 SBS의 케이블 채널인 SBSFIL에서도 방송 중이다. KT시즌 관계자는 “‘NCT라이프’를 통해 신규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팬덤 이외의 이용자들의 반응도 좋아 아이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원로배우 윤양하, 지병으로 5일 별세



윤양하

원로배우 윤양하(윤병규)가 5일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1세. 13일 한국영화배우협회에 따르면 윤양하는 5일(한국시간) 미국 버지니아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장례식은 14일 버지니아주 센터빌의 ‘함께하는 교회’에서 열리고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이대근, 원미경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940년 전북 순창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학시절 유도선수로 활약하다 1967년 영화 ‘산불’의 단역을 거쳐 같은 해 ‘빙점’으로 데뷔했다. ‘월하의 검’ ‘필살의 검’ ‘내장성 대복수’ 등 1960~80년대 액션영화에 출연했다. 1990년대 중반 대한체육유도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1992년 바르셀로나·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유도 대표팀 단장을 맡았다.

스포티파이 ‘케이팝 대박’ 17억회 스트리밍

세계 최대 음악플랫폼 스포티파이의 케이팝 플레이리스트 ‘케이팝(K-Pop) 대박’에서 7년간 약 17억회 스트리밍이 실행됐다. 13일 스포티파이는 ‘케이팝 대박’ 론칭 7년을 맞아 관련 글로벌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케이팝 대박’은 약 310만 구독자에서 출발, 7년간 7만곡의 케이팝 노래를 소개해왔다. 1억곡의 누적 스트리밍 횟수는 약 8800만 시간, 1만년을 넘어서는 분량이다. 이용자는 18~24세(51%), 25~29세(20%) 순, 미국·인도네시아·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마동석-안젤리나 졸리, 영국 잡지 커버 장식



배우 마동석이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와 영국 잡지 커버를 장식했다. 13일 마동석은 SNS를 통해 영국 영화 매거진 ‘토탈 필름’ 표지 사진을 올리고 ‘이터널스 마블’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사진에는 마동석이 출연작 ‘이터널스’의 슈퍼히어로인 길가메시 분장으로 극중 테나 역을 맡은 안젤리나 졸리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터널스’는 수천 년에 걸쳐 정체를 숨겨온 불멸의 히어로들이 인류를 위해 힘을 합치는 과정을 담아 11월 개봉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中 온라인 플랫폼도 ‘스타 팬덤 규제’ 선언…한류 위축되나

중국 당국의 연예인과 팬덤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와 관련해 현지 유력 온라인 플랫폼들도 자율 행보에 나섰다. 한한령으로 한류 스타와 팬덤 중심의 한류 콘텐츠가 제한적으로나마 유통돼온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중국판 SNS인 웨이보를 비롯해 QQ뮤직, 다우인 등 유력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율적인 스타 팬덤 규제를 선언했다. 온라인을 통한 모금 활동, 악성 루머 유포, 인위적 조회수·인기 순위 올리기, 연예인 개인 정보 공유 등이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계정은 폐쇄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앞서 방탄소년단 등 한류 톱가수들의 21개 웨이보 계정이 무더기로 운영 정지당했다. 또 음원 차트를 운영해온 QQ뮤직은 한 명의 이용자가 한 개의 음원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현지 당국의 ‘홍색 정풍’(연예계 정화운동)과 무관치 않다. 중국 당국은 “정치적 소양과 도덕적 품행, 사회적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한 방송·인터넷 시청 플랫폼 출연자 선정”하고, “불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을 “배제”하는 등 엄격한 규제에 나섰다.

이에 국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경계심이 높아가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이 같은 규제가 한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한류 팬덤의 활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시선이 나온다. 13일 한 가요관계자는 “그동안 음원 등 중국 팬들의 구매 효과가 작지 않았다”면서 “한한령 규제로 현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 그나마 팬들과 소통해왔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된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한국 대중음악의 대 중국 수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웨이보·QQ뮤직 등 자율적 행보
소통 차단…음반 수출 감소 우려

한다는 시선도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 한류백서’는 한국 대중음악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중화권 수출액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썼다. 김진우 가온차트 수석연구위원도 지역별 실물 음반 수출 비중에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이 2017년 92.6%에서 이듬해 85.2%, 2019년 77.2%에서 지난해 75.8%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북미와 유럽 지역 수출이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의 규제가 한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김오곤 원장이 원료선택부터 성분배합까지 직접했습니다.



한의학자 김오곤원장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국내산 6년근 **홍삼**, 천종 산삼의 현대과학 결정체 **산삼배양근**, 러시아 자작나무 **차가버섯** 등 10여가지를 우리 몸에 좋은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습니다.



※ 6개월분 구매시 침향환 10개 들이 4박스 증정 ※

그런데 이 가격 믿기지 않으시죠? 이유는 많은 양의 원료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소량으로 구매시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의사인 김오곤 제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소비자분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주문전화 ☎ **080-232-5866**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국제종합물산)

라이터크기 초소형 녹음기 테잎없이 연속 260시간 녹음

일반대화, 강의녹음, 설교녹음, 증거녹취 각광...
거짓말, 탄소리, 사실왜곡 꼼짝마!
녹음을 생활화하면 문제가 술술 풀린다.

최근 테이프 없이 장정 260시간이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라이터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가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 전문업체인 **국제종합물산** (구입문의:063-232-5877)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제품은 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쇄도, 각광을 받고 있다. 초소형 녹음기는 1회용 라이터크기만에 각종회의 세미나, 강의, 수업, 증거녹음, 설교녹음 등 사용자가 무궁무진해 현대인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일반 대화녹음은 물론 전화 및 핸드폰도 매우 깨끗하고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키세트녹음기나, 컴퓨터 등에도 음성을 옮겨 영구히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편집을 할 수 있어 사립가, 자영업자, 학생, 회사원, 종교인, 주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거래상 호주머니에 넣고 녹음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화내용을 선명하게 녹음 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중요한 구두계약이나 사업상 거래에서 대화내용을 들었던 증인이 없으면 아예 계약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탄소리’, ‘거짓말’, ‘오리발’, ‘사실왜곡’ 등을 해 당황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이럴 때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제품은 증거녹음 강의를 통해 진가를 발휘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음성감지기능(소리가 나면 녹음이 되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지 대기 비밀녹음시 유용), 반복재생기능, 자체 스피커로 들을수 있는 기능, 녹음시간 표시기능, 삭제기능, 음량조절기능, 이어폰 사용기능, 우선전화 핸드폰 녹음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고급형



(저가용) 보급형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63-232-5877 국제종합물산**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아침이 가뿐 · 상쾌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

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출시, 판매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종합물산에서 인기리에 시판하고 있는 목초수액시트는 자기 전에 양쪽 발바닥에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내는 건강증진 보조제품으로 **갈색으로 흉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목초(木草)는 목탄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로부터 채취하는데 나무를 굽 굽는 가마에 넣어 구우면 수목내부의 엑기스가 증발하여 연기와 함께 나오게 된다. 이것을 급속 냉각 일정기간 지난 후, 정제과정을 거친 목초수액시트를 발바닥에 붙이는 이유는 밤은 전신이 투영된 반사구나 경혈이 모인 장소로서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인간은 밤, 소변, 대변,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이 빠지고 있으나 그 불필요한 것 등,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밤에 쌓인다는 것이 발 건강요법 전문가들의 말이다. **월간 ‘주부생활’ 2001년 10월 호에서 발 관리전문가 김 모씨에 따르면 “건강한 몸과 밝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며 “**발은** 자극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관리하면 건강증진에 좋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의 사용법도 매우 간편하다. 자기 전 양쪽 발바닥에 1장씩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나 떼어 내면 되고, 발바닥외의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에는 24시간 붙였다가 떼어 내면 된다. 이 제품은 무릎, 팔, 다리, 어깨,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장시간운전자, 수면이 부족한 사람, 많이 무거운 사람,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가사 일이 많은 주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미용실서 일하는 사람, 수험생, 연로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건강관리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판매원의 한 관계자는 “이 제품은 절대 의약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며 공산품이지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며 “관계법령에 의해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농협 : 511-12-185903
(예금주 : 고봉석)

문의 ☎ **063-232-5855 국제종합물산**